

☀ 설명 포함 강조 모드

오늘 수업에서는 **시제 표현**과 **피동 표현**을 중심으로 배웠어요. 선생님의 리듬과 말투 살려서 정리해 볼게요!

🐱 시제 표현: 과거, 현재, 미래

- 애들아~ 기준은 항상 될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내가 지금 말하는 시간, 발화시!
- 사건이 발화시 **이전**이면 과거, **동시**면 현재, **이후**면 미래야!
- **✓ 시험에 꼭 나온다!** “기준은 항상 발화시!” ★
- 예문 보자~
- 꽃이 피었다 → 과거긴 한데 지금 피어 있는지는 몰라!
- 꽃이 피어 있었다 → 과거랑 **단절**, 지금은 안 피어 있어! **✓**
- 이걸 **단절 과거**라고 해요~
- 관형사형 어미에서도 시제가 나타나요!
- 먹던 빵 → 과거
- 먹는 빵 → 현재
- 먹을 빵 → 미래
- 예쁜/예뻐던 → 형용사는 살짝 다르게 나타나니까 구별 꼭! **✓**

🐱 피동 표현

-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 능동!
-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는 뭐다? **✓** 피동! 동작을 **당한** 거야.
- 왜 피동문을 쓰냐고? 초점을 어디에 두고 싶어서!
- 경찰보다 도둑이 **잡혔다**는 **사실이 중요**할 때 쓰는 거야!
- **★ ★ 이거 정말 시험에 나온다!**
- **피동문의 특징:**
- 목적어가 주어로 올라온다
- 주어였던 건 부사어로 내려간다
- 어미에 ‘이/히/리/기’ 같은 **파생접사**가 붙어 새 단어가 된다 → **✓ 파생적 피동**
- 혹은 ‘어지다/게 되다’ 같은 구조로 문장 전체가 바뀌면 → **✓ 통사적 피동**
- 예문:
-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파생적)
- 문이 닫혔다, 꽃병이 깨졌다, 믿기지 않는다, 바뀌었다 등등 예시 꼭 기억해!

- **! 이중 피동은 안 된다!**
- 예: “보여진다” ❌ → “보인다”로 써야 돼! 꼭 기억하기 ★
- 피동 표현의 **의의**:
- 행위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함
- 문장의 **객관성** 강조에 적절



완전 기록 모드

과거, 현재, 미래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나눈다. 사건이 발화시보다 먼저면 과거, 동시에 일어나면 현재, 나중에면 미래다.

예) “꽃이 피었다”는 과거. “꽃이 피어 있었다”는 지금은 피어 있지 않다는 뜻. → 과거와 단절.

관형사형 어미에서도 시제가 나타난다. 예: 먹던 빵(과거), 먹는 빵(현재), 먹을 빵(미래). 형용사는 예쁜(현재), 예뻐던(과거) 식으로 구분됨.

피동 표현은 동작을 당하는 의미로, 초점을 당하는 대상에 맞출 수 있게 해준다.

예)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 능동,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 피동.

피동문은 목적어를 주어로, 주어를 부사어로 바꾸고, ‘이/히/리/기’ 같은 접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되거나, ‘어지다’, ‘게 되다’ 등 구조가 바뀌어 통사적으로도 나타난다.

이중 피동은 사용할 수 없다. 예: 보여진다 ❌ → 보인다 ○

피동 표현은 행위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감추고 싶을 때, 또는 객관적 문장 표현을 위해 사용된다.